

---

## 특집 -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II

---

- ◆ 멕시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우성
- ◆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 개관  
박종탁
- ◆ 칠레 법제의 발전과 사법개혁 동향  
이세정



## 멕시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 우 성\*\*

###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멕시코의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
- III. 멕시코 법학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 IV. 나가면서

### I. 들어가면서

멕시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조인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사법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멕시코에서는 법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학부에서 법학사(Licenciado en Derecho)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변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것이며, 보통 법학교육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학부의 법학사 과정을

\* 본 논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II> (2008. 11. 28)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증보하고 각주를 붙인 것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의미한다.

멕시코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의 법학 전공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공 중의 하나이며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공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엘리트의 대부분이 멕시코 국립대학교 법학부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는 국립대학교 법학부가 개인적인 인맥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아직까지도 멕시코에서 법학전공은 사회적으로 부, 사회적 명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로 간주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법률가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법학교육의 문제가 중요성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이나 법조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또한 질적인 변화보다는 양적인 변화뿐이어서 현재 멕시코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치국가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멕시코에서 변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학부의 법학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변호사 자격증은 어떤 절차에 의해 취득되고,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즉 법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떤 교육과정과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멕시코 법학교육이 당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멕시코의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

### 1. 입학

멕시코에서 법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별

로 규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멕시코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산하의 국립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입학시험 없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입학시험을 요구한다.

2007년 현재 멕시코에서는 930개 교육기관에서 1,130개의 법학사 과정을 운영하며, 약 240,000명의 학생이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는 364개 대학에서 367개의 법학사과정을 운영했으며, 170,210명의 학생이 법학을 전공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법학 전공을 개설한 대학의 수가 156%, 법학사 과정이 208%, 법학 전공 학생수가 41%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Pérez Hurtado 2008; 32). 그렇다면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페레스 우르타도(Pérez Hurtado 2008; 34)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그 이유로 든다. 첫째, 멕시코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획기적으로 증대했고, 둘째, 법학사 과정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수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셋째, 학생들이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고등교육의 장이 확대된 것은 비단 법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의 많은 전공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최근 30년 사이에 4년제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수가 3배로 증가했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대학 입학생수가 53% 증가하여 오이시디(OECD)국가의 평균인 41%를 훨씬 상회한다.

현재 멕시코의 법학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소규모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에서 법학사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교실하나와 몇몇의 시간강사만 있는 학과들도 많다. 도서관이나 거창한 연구나 출판을 위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학생들이 법과대학을 선택한 동기는 다양하다. 2002년 멕시코시티에서 법과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

자의 42.5%가 법과대학을 지망한 이유로 ‘경제적 혜택’,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다양성’, ‘사법제도의 개선’을 들었다. 설문대상자의 41.6%는 ‘사법정의 구현’, 40.4%는 ‘분쟁 해결’, 그리고 18.3%는 친구와 친지의 영향으로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고 답했다(Fix-Fierro and López-Ayllón 2006b).

법학사 과정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7년에 34,470명의 학생이 법과대학에 들어 왔으나 5년 후 약 87.3%의 학생들만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 중 법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 다시 말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50%에서 60%에 불과하다. 참고로 2003년 졸업생 대비 변호사 자격(법학사 학위) 취득률은 55.7%이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비를 거의 받지 않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생 대비 학위취득률이 낮고,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률이 높다(Fix-Fierro and López-Ayllón 2003).

## 2. 법과대학의 수

2007년 현재 멕시코의 법과대학은 930개로, 1990년대에 법과대학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대부분 소규모 사립대학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법과대학 학생들은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0년대 초반 전국에서 가장 큰 법과대학은 멕시코국립대학과 뿌에블라(Puebla)주립대학이었으며, 각각 만 명과 만이천 명의 학생이 법학을 전공했다. 이 당시 사립대학의 법과대학에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재학하고 있었다<sup>1)</sup>.

1990년대 들어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전

---

1) 멕시코의 명문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대부분은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이 소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대중 교육기관으로 바뀌던 시기인 1960년대에 생겨났다.

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한다. 우선, 이 시기에 멕시코의 고등교육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에서 입학정원을 동결시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에서 법학 전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기존의 사립대학에서 법과대학을 신설하여 이를 흡수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립대학들이 사회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에 있었다. 대부분의 이러한 대학들은 수업연한을 단축했고, 일부 대학은 졸업논문 요건을 삭제했으며, 강의시간표도 직장인에게 맞추었고, 전공과목 역시 실무 위주로 편성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한 법률 분야를 특화해서 가르쳤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이러한 사립대학들이 그 전까지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거의 없었던 지역에 위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학사과정을 만드는 데 별다른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실과 시간 강사 몇 명만 있으면 법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실 수준의 도서관이면 충분했고 거창한 연구나 연구총서 발간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교육당국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의 법과대학과 사립대학의 법과대학은 차이가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적인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즉,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진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단지, 교육 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수학하는 사립대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유리하다. 전통적으로 멕시코에서는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 법과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졸업생들은 기업과 같

은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세계화와 함께 경제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립대학의 졸업생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상황이다.

마갈로니 (Ana Laura Magaloni 2006)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법과대학<sup>2)</sup>에서는 같은 형틀에서 변호사를 양성한다. 이들 대학 간에 나타나는 주된 차이는 졸업생의 질적 수준이 동질적인가 아니면 이질적인가에 있다. 예를 들면 자유법과대학의 졸업생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졸업생들은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요 법과대학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대학보다는 영어성적이나 출신 고등학교 또는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이나 자질 등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3. 학사 학위 취득

전통적으로 법과대학의 수업연한은 5년이다. 그러나 1980년부터 수업연한이 더 짧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2007년 현재 5년의 수업연한을 갖는 법학사 프로그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33%의 프로그램은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이다. 최근에는 2년 8개월 만에 마치는 법학사 과정도 생겨났다. 이렇게 수업 연한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은 종래의 1년 단위 내지 학기 단위로 짜여진 교육과정을 분기(4달) 단위로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두고 5년이나 9-10학기의 수업연한을 갖는 종래의 교육과

---

2) 마갈로니가 선정한 멕시코 6대 법과대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법과대학(Escuela Libre de Derecho), 멕시코자치공과대학(Instituto Tecnológico Autónomo de México), 몬테레이공과대학교(Instituto Tecnológico de Educación Superior de Monterrey), 멕시코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라사예대학교(Universidad La Salle), 판아메리카대학교(Universidad Panamericana) 그리고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Universidad Iberoamericana)이다. 이중에서 국립대학은 멕시코국립대학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대학교이다.



정 대신에, 단축 교육과정은 1-2주의 짧은 방학을 두고 9-10개의 4개월짜리 학기를 개설한다. 이렇게 해서 긴 방학 대신에 학위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직장인을 유치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sup>3)</sup>.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멕시코에서는 법과대학에서 주는 법학사 학위가 곧 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법과대학이 속한 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멕시코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모든 과목을 이수할 것
- 2) 필수과목인 사회봉사를 마칠 것
- 3) 각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것

사회봉사는 멕시코 정부가 모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 학생들이 갖는 일시적인 직업이다. 이를 위해 각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 전공의 성격, 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지를 결정한다. 사회봉사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법학 전공자의 경우 6개월 동안에 240시간에서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며 이는 주로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마지막 학기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멕시코의 각 고등교육기관은 내규로 졸업요건을 정한다. 따라서 법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러한 졸업요건을 일반적으로

---

3)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몇 개의 강좌를 희생하는 대학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비실체법 관련 과목들이 희생된다.

‘학위수여 옵션(Opciones de titulación)’이라 부른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봉사를 마친 후, 교육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법학사를 취득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오랜 기간 조사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는 학위논문 제도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사학위 취득 방법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이 점점 덜 사용된다. 현재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옵션이 널리 사용된다.

- 1) 자동학위 수여(제로 옵션)
- 2) 법학사 과정 종합시험
- 3) 실무경력자 학위 수여

먼저, 자동학위 수여는 제로 옵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봉사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명 사립대학의 법과대학에서 시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정규시험만으로도 졸업생의 자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대학에서 보다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두 번째 옵션은 법학사 과정 종합시험이다. 이는 2000년에 고등교육평가원(Centro Nacional para Evaluación de Educación Superior)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방법으로 법과대학 졸업생이 변호사로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지식, 능력, 가치관의 정도를 총체적이고, 투명하고,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몇몇 대학에서는 이 시험을 학위수여를 위한 선택으로 사용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단지 졸업생들의 학력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 옵션은 실무경력자에게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이다. 이는 졸업생

의 학위 취득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도로,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선호한다.

법학사를 이수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변호사 자격증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변호사들이 모든 법률자문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 형사, 노동, 농업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있다<sup>4)</sup>. 또한 멕시코시티와 여러 주에서 전문직업에 관한 법으로 법학사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학점의 80%에서 100%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자’ 자격증을 부여하여, 3년 동안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법학사 과정에서는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자.

#### 4. 교육과정

멕시코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통일된 법학 교과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없는 관계로 각 대학마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접근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실을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마갈로니(2006)는 멕시코의 6개 유명 법과대학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대학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멕시코에는 실체법 강좌들이 변호사 양성을 위한 핵심이고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변호사를 양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강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4) 멕시코 헌법 20조 9항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나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의 법과대학 교육과정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나라에서 변호사들이 받아야 할 기초교육과 관련하여 기존 변호사들 사이에 정형화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호사들이 법과대학의 학장과 교수진을 구성하며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그들이 졸업생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므로 법과대학생들이 그러한 기초 지식을 보유할 것을 기대한다.

또 다른 이유는 법학교육을 개혁할 기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법과대학에서는 연구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학교육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지식이 실질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법과대학의 교수진 중 전임교수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현직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다. 따라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자신들이 학부시절 배운 방식대로 가르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멕시코의 법과대학 학생들은 학부에서 40개에서 70개 사이의 필수과목을 수강한다. 이는 너무나 많은 강좌로 멕시코 법조계에 팽배해 있는 “변호사는 법의 모든 분야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대로 백과사전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법률 과목, 경제 및 공공정책 과목, 역사, 사회학 및 정치학 과목, 연구 및 논문 세미나, 선택 과목, 그리고 기타 과목(수학, 회계학, 컴퓨터, 문어 및 구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과목은 실체법, 이론 및 방법론, 새로운 영역의 법(예: 환경법, 증권법, 정보통신법등), 실무강좌(임상강좌)등을 포함하며 상기의 명문 6개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6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법률과목 중 대부분은 실체법과 관련된 강좌들이고 다음으로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강좌가 많았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법과 관련된 강좌나 실무 강좌는 가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멕시코 법학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멕시코가 시행해온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정책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경우에는 법률서비스 시장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먼저, 법률시장에서는 경제 개방으로 인해 요구되는 변호사의 실무능력과 현행 법학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지적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변호사에게 법학교육의 개혁은 생존의 문제이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들과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와 매일 씨름한다. 그러나 멕시코와 이들 두 나라의 법학교육에서의 질적 차이는 멕시코 변호사들의 법률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하게 만든다. 이들은 현행 법학교육 체계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룹으로, 대체로 멕시코의 현행 법학교육으로는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에 들어왔을 때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법학적 재능마저도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법학교육 개혁의 방향은 멕시코의 법학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개혁을 바라는 변호사들 역시 멕시코 법학전통에 맞는, 변호사 양성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과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가 상충하는 현대 사회에서 법학교육의 초점을 법학이론이나 법률의 운용에만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변호사가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화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법학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능력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다량의 정보를 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2) 문제해결 능력
- 3)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문어, 구어)

-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타협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
- 5) 창의성과 유연성

교육 수요자인 신세대 법학 전공자들은 기성세대처럼 법학전공을 정치 권이나 관계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를 꿈꾼다. 이러한 미래의 법학교육 수요자의 기대치의 변화는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법과대학에게 커다란 도전을 제기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들이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나와 있다. 설문대상자의 58.9%가 국제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23.3%는 사법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그 외에도 행정부(18.3%), 소송변호사(16%), 학계(6%)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Fix-Fierro and López-Ayllón 2006b).

법학교육의 바람직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 1) 법률을 외우는 대신에 맥락에서 이해하는 교육
- 2)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 3) 실무 중심의 교육
- 4) 일과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는 교육
- 5) 학문적 엄격성과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육
- 6) 학제간 교육
- 7) 수년간 경험으로 검증된 교육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멕시코의 미래의 법률가들은 권력구조

와 사회조직이 변화하고 있는 멕시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갖는 유능한 변호사와 좋은 법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들이 세계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타입의 변호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신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대학의 법학교육 개혁의 성패와 관련된다.

####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멕시코에서 학부의 법학교육은 미국이나 우리의 로스쿨과 같이 변호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며 2007년 현재 930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20%미만의 대학에서만 연구와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수업방식은 교수의 강의가 주를 이루며 복잡한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교수들은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활동과 교육을 동시에 하며, 법과대학의 교수는 법에 대한 지식만 많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수법에 대한 훈련은 거의 받지 않는다. 교육은 실무와는 거리가 있으며 법은 실생활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학부의 법학교육에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부터 멕시코에서 시작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에 일대 개편을 의미한다. 단지 새로운 분야의 몇 가지 법률 과목을 추가하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한 법학교육의 질과 구조의 향상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멕시코 사법제도 전반의 질과 효율성의 제고로 이

14 比較法學(第20輯)

어지기 때문에 멕시코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 참고문헌

- Fix-Fierro, Héctor(ed.) (2006), *Del Gobierno de los Abogados Al Imperio de las Leyes. Estudios Sociojurídicos sobre Educación y Profesión Jurídicas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http://www.educacionjuridica.org/Publicaciones/tabid/131/Default.aspx>
- Fix-Fierro, Héctor and López-Ayllón, Sergio(2003), "La educación jurídica en México. Un panorama general." <http://www.bibliojuridica.org/libros/4/1968/15.pdf>
- \_\_\_\_\_(2006a), "¿Muchos abogados, pero poca profesión? Derecho y profesión jurídica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in *Del Gobierno de los Abogados Al Imperio de las Leyes. Estudios Sociojurídicos sobre Educación y Profesión Jurídicas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Héctor Fix-Fierro ed., 2006) <http://www.educacionjuridica.org/Publicaciones/tabid/131/Default.aspx>
- \_\_\_\_\_(2006b), "De las buenas y malas razones para estudiar "leyes". Análisis de una encuesta a estudiantes de derecho en la ciudad de México", in *Del Gobierno de los Abogados Al Imperio de las Leyes. Estudios Sociojurídicos sobre Educación y Profesión Jurídicas en el México Contemporáneo*(Héctor Fix-Fierro ed., 2006) <http://www.educacionjuridica.org/Publicaciones/tabid/131/Default.aspx>
- Magaloni, Ana Laura(2006), "Cuellos de botella y ventanas de oportunidad de la reforma a la educación jurídica de elite en México", in *Del Gobierno de los Abogados Al Imperio de las Leyes. Estudios Sociojurídicos sobre Educación y Profesión Jurídicas en el México*

*Contemporáneo*(Héctor Fix-Fierro ed., 2006) <http://www.educacionjuridica.org/Publicaciones/tabid/131/Default.aspx>

Pérez Hurtado, Luis Fernando(2008), "An overview of Mexico's System of Legal education", <http://ssrn.com/abstract=1157959>.

Abstract

## The System of Legal Education in Mexico

Kim, Uh S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Mexico's system of legal education. The legal education in Mexico in general refers to the study of the *Licenciatura en Derecho* and the process for obtaining the license to practice as a lawyer. The study focuses on three issues: (a)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Mexico's system of legal education; (b)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law programs; (c) the challenges facing Mexican law schools.

Key Words: Legal Education, Mexico, Law Program, Law School, *Licenciatura en Derecho*

